

재활용품 상시 배출제 시범 운영 없던 일로

제주도 “동 지역 시범 운영 안하고 설문·연구 용역으로”
김덕홍 의원 “도지사 한마디에 움직여 이런 결과 초래”

속보=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이하 요일별 배출제)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특정 동 지역에 상시 배출제를 시범 도입해 효과를 검증하려던 제주도의 계획(본보 9월 1일자 1면 보도)이 무산됐다.

지난 1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54회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2차 회의에서 임홍철 제주도 환경산업자원국장은 상시 배출제 시범 운영 계획 추진 상황을 묻는 김덕홍 의원(무소속, 조천읍)의 질의에 “양 행정시 논의와 내부 검토를 거쳐 (상시 배출제) 시범 실시를 하지 않고 지역 설문을 하고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는” 용역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제주도는 위성군 제주지사 공약에 따라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 용역 추진과 상시 배출제 시범 운영 등 두 갈래 계획을 세웠다.

특정 지역에 상시 배출제를 2~3개월 간 시범 도입해 효과와 문제점을 검증하는 한편, 연구 용역도 함께 진행해 제도를 아예 폐지할지, 기본 골격은 유지한 채 개선하는 것이 좋을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게 제주도의 계획이었다.

문제가 된 것은 재활용품 상시 배출제 시범 실시다.

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 지역에서 재활용품 상시 배출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하고, 양 행정시에 시

행 대상을 추천해 달라고 지난 7월 요청했다.

서귀포시는 시범 운영 대상을 선정해 추천했지만 제주시는 추천을 포기했다. 제주시 동 지역 중 시범 운영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이 단 1곳도 없었기 때문이다.

상시 배출제 전환이 늘어나는 쓰레기를 감당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업무 부담이 커지고 민원 발생 우려도 높다는 이유에서다.

A동주민센터 관계자는 본보와 인터뷰에서 “안 그래도 클린하우스 내 수거함마다 쓰레기가 넘쳐 나는데, 상시 배출제로 전환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며 “클린하우스 공간도 협소해 수거함을 추가로 배치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했다.

상시 배출제 시범 전환이 난항에 부딪힐 것이란 전망은 이미 지난 8월 제2회 주경 심사 때 제기됐

었다.

당시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한림읍)은 상시 배출제로 전환하면 배출량이 늘어 그만큼 수거 인력과 차량이 더 필요한데도 2회 주경에 시범 운영비가 편성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도는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선 현재 보유한 장비와 인력만으로 시범 운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제주시 동 지역이 상시 배출제 시범 운영을 꺼리면서 제주도는 결국 해법을 찾지 못하고 이번 계획을 포기하고 말았다.

김덕홍 의원은 “이렇게 오락가락하니 도민들이 도정을 신뢰할 수 있느냐”며 “원래 시범 운영을 하려면 읍면동과 행정시의 의견을 듣고 해야 하는데 도지사 한마디로 인해 움직이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추석연휴 무인민원발급기 정상 운영
공항·여객터미널·읍면동 40곳… 법원 등 9곳은 제외

제주시가 추석 연휴 기간에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정상 운영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발급 가능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국세·지방세 증명서 등 총 123종이다.

현재 제주시에는 관공서, 공항,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해 총 44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 53대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제주공항, 제주여객터미널, 제주시청, 읍·면·동 등 40개소에 설치된 4대는 연휴 기간에도 정상 운영된다.

다만, 실내 출입이 제한되는 경제통상진흥원, 제주고용센터, 제주지방법원, 정부종합청사, 제주도청

민원실 내부, 이도2동주민센터 내부, 애월읍사무소 내부, 연동주민센터 내부, 아라동주민센터 내부 등 9개소·9대는 운영하지 않는다.

시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5~23일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시스템 작동 상태와 보안 상태를 확인하고, 소모품을 점검한다. 이를 통해 연휴 기간 시민들이 민원서류 발급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설치 장소와 운영시간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 민원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금탁기자

서귀포시 ‘정방동 셋기정’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서귀포시는 ‘정방동 셋기정’을 서귀포시 제11호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해당 지역 소상공인들의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상품권 사용을 통한 고객 유입과 매출 증대 등 상권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상권이 공동사업과 상권 홍보 등이 가능해져 개별 점포 중심의 영업에서 벗어나 상권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셋기정’은 정방동이 가진 옛 정취와 현재의 생활·상업 공간이 함께 자리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지역 고유의 이야기를 상권의 정체성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의 기억이 담긴 공간과 현재의 상권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주민과 관광객이 찾는 활력 있는 골목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백금탁기자

용담1동 경관보행교 공사 용한로 일부 차로 통제

제주시 용담1동 도로 위를 지나는 경관보행교 강관 거더 공사가 본격 시행된다.

시는 ‘용담동 경관보행교 설치사업’의 강관 거더 거치 작업을 14일 오후 10시부터 15일 오전 5시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작업은 용한로를 횡단하는 경관보행교의 주요 구조물인 강관 거더를 도로 횡단 구간에 거치하는 공정으로, 대형 구조물의 안전한 설치를 위해 차량 통행량이 적은 야간시간대에 이뤄진다.

작업이 이뤄지는 동안 용한로 왕복 4차로 가운데 3개 차로가 구간별로 일부 통제된다.

강관 거더 거치 공사가 완료되고 경관보행교가 설치되면 교량 하부통과 높이가 4.5m가 확보된다.

시에 따르면 ‘용담동 경관보행교 설치사업’은 용담1동 제2천천교에서 탐동 방향 용한로 구간에 길이 27m, 폭 3.5m 규모의 경관보행교를 설치해 도로 양측 보도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시는 총사업비 13억원을 투입해 단절된 보행동선을 연결하고, 인근 공원과 마을 간 보행 접근성을 높여 주민과 방문객의 보행 편의와 안전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제주시 재산세 1015억 부과

제주시는 올해 9월 정기분 토지·주택 2기분 23만5839건에 대한 재산세 1015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부과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기준 제주시에 있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되지만, 재산세 본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일괄 부과되고 있다. 백금탁기자



마늘파종 구슬땀 13일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한 농경지에서 농민들이 마늘파종 작업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시, 스쿨존 불법 주정차 오후 8시까지 단속

평일 오후 5시에서 연장
초등학교 48곳 대상

제주시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을 오후 8시까지 확대·운영한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시간을 기존 평일 오후 5시에서 오후 8시까지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단속시간 확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안

전 위험을 줄이고,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운영시간과 일치시켜 단속기준에 대한 시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대상지역은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48개(동지역 33, 읍면지역 15)

초등학교에 설치된 고정식 CCTV 85대(동지역 64, 읍면지역 21)이다.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던 단속시간을 오후 8시까지 3시간 연장하며, 휴일은 기존과 같이 단속을 유예한다.

시는 이번 단속시간 확대에 앞서 시민 의견 수렴을 지난 7월을 시작으로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 중이다. 백금탁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공고 제2026-6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비상임이사 공개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비상임이사 공개 모집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1. 임용예정직위 및 선발인원: 비상임이사 (1명)
2. 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3년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1년 단위 연임 가능)
3. 모집직무 및 직무수행요건
□ 모집직무
○ 법령·정책상의 담당직무
· 공사 경영에 대한 정책제안, 자문 등의 경영지원 업무수행 및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공사의 주요 경영정책을 심의·의결
□ 직무수행요건
○ 직무수행요건
· 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력
· 전문성, 종합적 판단 및 정책 결정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 기타 수행 능력요건
·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에 필요한 높은 도덕성과 리더십, 문제해결능력을 겸비
· 국내외 경제·정치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능력
· 기업회계에 대한 기본 소양
· 지방공기업인 공사의 경영과 관련한 전문성의 보유
· 공사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환경 변화에 대응능력 및 조직의 역량 강화를 선도할 수 있는 리더십 구비

4. 응모자격 : 지방공기업법 제80조(임직원의 자격 사항 등) 및 공사 정관 제33조(임원의 자격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공고일 현재 다음 요건 중 최소한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임용직위	종모 자격
비상임 이사	1. 국가 및 지방공기업에서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상장기업에 등에서 임원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 및 지방공무원 4급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경영·회계·세무 등 관련분야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분야 근무경력 소지자 6. 경제, 경영 및 노사관계 등 기업경영에 대한 식견과 경력이 풍부한 자 7.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5. 원서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9. 3.(목) ~ 9. 18.(금) 18:00까지
※ 근무시간(09:00 ~ 18:00)내 접수 토·일요일·공휴일 접수 불가
나. 접수방법 (마감일 접수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문로 33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인사교육팀 임원추천위원회 담당자 앞
· 인터넷접수 : E-mail(recruit@jpd.co.kr)

※ 제출서류 및 기타 세부사항은 공사 홈페이지(www. jpd.co.kr) 채용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귤 신품종 분양

2027년 공급분 품종안내

만감류
우리향, 달코미, 맛나봉,
레드스타, 설향, 미래향,
사라향, 한라봉, 아나마스,
레몬, 탐나는봉

온 주
궁천, 유라조생, 하레조생,
흥진조생, 고림, 오히라베니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명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큰도넛)

중자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대표 : 010-2691-1883

국립종자원 인증'무병묘'생산업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게장원농장

< 무병묘 > 2025년 도내 최초!
무병묘 총 3만주
농가 보급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
2026년 무병묘 예약 받습니다.
정부지원금 최대 1,500원 지원
인증서가 있는 것만 무병인증묘입니다.

< 도내 / 국내육성품종 >
도내육성: 우리향 / 달코미 / 레드스타 / 맛나봉
국내육성: 미래향 / 사라향 / 하레조생 등등
도내 육성 품종은 제주도에서만 재배 가능합니다.
위 품종들은 통상실시 완료된 업체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 포트묘 >
도내 최대 <포트묘> 생산
천혜향 / 레드향 / 한라봉 / 궁천 / 흥진 / 금굴
유라조생 / 하굴 / 팔삭 / 자몽 / 레몬 외 다수 품종

중자입등록번호 제18-제주-2022-20-02
제주시 조천읍 복선로100-29 / 조천읍 선흘리 3083, 2995-3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 무병묘 인증업체, 통상실시 완료업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게장원농장